

삼국지

4

한제를 끌어내리고 새 황제를 세우다 - 조조, 칼 한 자루로 천하를 뒤흔들 계획을 품다!

그날 밤, 찬란한 등불 아래 황궁의 연회장은 고요한 긴장으로 얼어붙고 있었다.

동탁의 눈빛은 마치 살기를 머금은 검처럼 번뜩였고, 곁에 선 호위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낮게 말했다

"저놈을 지금 당장 죽여야겠어. 대의를 거슬러 감히 내게 대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술잔을 들고 있던 책사 이유가 손을 들어 막아섰다.

"태위계선 성정이 급하십니다. 아직 모든 수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성급히 피부터 보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동탁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시라, 연회장을 등진 원소는 분노를 억누르며 금으로 장식된 검을 손에 들고 조용히 문밖으로 나섰다. 그는 문무백관들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허리춤에 걸려 있던 인장의 끈을 풀어 동문에 걸어두었다. 그 상징은 곧 '나는 이제 조정의 벼슬을 버린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리곤 말에 올라타 날이 밝기도 전에 동문을 뚫고 날아가듯 익주를 향해 떠났다.

"자, 그놈은 스스로 떠났다. 이제..."

동탁은 자리로 돌아오며, 곁에 앉은 태전 원외를 향해 말을 건넸

"네 조카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네 체면을 봐서, 이번만은 참도록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페립이다. 황제를 갈아치울 때가 온 거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외는 오래된 벼슬아치답게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위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옵니다."

동탁은 곧 무겁게 말을 덧붙였다.

"앞으로 이 일에 이견을 다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반대는 곧 반역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바람 한 점 없이 얼어붙었다. 장내의 백관들은 땀을 빼질빼질 흘리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태위님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난 후, 동탁은 따로 시중을 들던 시중관 주필과 교위 오경을 불러 물었다.

"원소는 어찌할 것 같소? 그놈이 그대로 물러나기만 할까?"

주필은 이마에 손을 대고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른 채 떠났지만, 그 마음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이 그를 사형자처럼 수배한다면, 분명히 반기를 들 겁니다. 원씨 가문은 4대에 걸쳐 백성의 신망을 받아왔고, 그의 문하생과 예하 관료들이 천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들을 규합하고 영웅들을 불러모은다면, 순식간에 반란의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산동 지방은 그 즉시 태워님의 통제 밖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그를 사면하고 한 고을의 태수로 임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죄를 면한 기쁨에 그는 반역을 포기 할 것입니다."

오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 자는 계책은 좋아하되 결단력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한 지방을 맡긴다면 스스로 만족하여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태워님의 너그러움을 찬양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동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 보았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용히 일어설 준비를 마친 영웅들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동탁은 생각보다 쉽게 주필과 오경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좋다. 그럼, 원소에게겐 보국의 은혜를 입은 듯한 자리를 하사하지. 보국태수라... 아니, 발해태수쯤이 적당하겠군."

그는 즉시 사자를 불러 원소에게 명을 내렸다.

"발해의 태수로 봉함이 마땅하다. 과거의 무례는 잊으니, 새롭게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바로 며칠 뒤, 하늘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구월 초하루 아침.

장안 전체가 긴장 속에 잠에서 깨어났다. 대내에는 전례 없는 위엄이 감돌았고, 도성의 수문장들조차 정복으로 갈아입고는 몸을 곧게 세운 채 침묵했다.

동탁은 황제를 불러 가덕전으로 오르게 했다.

그곳은 평소 황제가 조신들과 함께하지 않던, 거의 신성불가침의 장소. 그 날만은 예외였다.

문무백관이 모두 소집되었고, 검은 예복을 갖춰 입은 채 침묵 속에서 자리했다.

그 웅장한 전자에, 동탁은 전신을 감싸는 흑비단 예복에 용문 금를 걸친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찬란히 빛나는 검이 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천군을 이끄는 신장 같았다.

그는 장내의 백관들을 훑어보며 위압적으로 선언했다.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천하가 불안하고 백성이 불행해진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한 통의 책문이 있다. 마땅히 모두가 들어야 할 글이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이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앞에 놓인 붉은 비단 위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효령황제는 세상을 일찍 떠났고, 온 천하는 새 임금을 기다려왔

그러나 지금의 황제는 천성부터 가벼우며, 위엄도 갖추지 못했고, 상중임에도 태도를 바로잡지 않았다.

백성 위에 서기엔 덕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천자의 자리마저 더럽혀지고 있다.

황태 후 또한 어머니로서의 법도와 가르침을 잃었으며, 국정을 맡으면서 조정은 어지럽기만 하다.

영락태후가 갑작스레 승하한 이래, 온 백성의 마음은 더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삼강오륜이 어지럽고,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진류왕 협은 천품이 어질고 도량이 넓으며, 말과 행동에 사사로움이 없다.

상을 당해도 슬픔을 깊이 간직하고, 한 치의 방종 없이 단정하다.

그 이름은 벌써 천하에 퍼졌고, 백성들은 모두 그를 새 임금으로 우러러본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금의 황제를 폐하여 흥농왕으로 강등하고, 황

태후는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신 진류왕을 새 황제로 삼아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바람을 따르도록 하자.

이것이 천명을 바로 세우고, 난세를 바로잡는 길이다."

책문이 끝나자 장내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는 소리도 없을 만큼

고요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문이 아니라 칼과 피가 뒤

섞인 선전포고였음을.

그 순간부터, 천하의 중심은 황제가 아니라 동탁이었다.

그는 검을 손에 든 채 천천히 황제의 좌우로 걸어가며 물었다.

"이 책문의 뜻을 거스를 자- 누구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조정의 하늘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는 한 자루의 칼을 손에 쥐고 천하를 찌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유가 무표정한 얼굴로 책문을 끝까지 읽자, 궁전 안의 공기는 한 순간에 얼어붙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동탁은 불호령을 내리듯 외쳤다.

"저 어리석은 황제를 당장 끌어내려라!"

무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황제는 눈을 부릅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발밑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좌우에서 무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억지로 끌어내렸고, 어깨에 걸려 있던 옥새와 인장을 강제로 떼어냈다.

그 젊은 황제는 이제 더 이상 천자'가 아니었다.

동탁은 그를 조롱하듯 북쪽을 향해 무릎 꿇게 만들었다.

"이제 너는 황제가 아니다. 백성의 신하로서 명을 따르거라."

황제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 신은 명을 받들겠나이다..."

뒤이어, 황후마저도 궁녀들 손에 의해 황후의 옷을 벗겨졌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전자 안에 모인 문무백관들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구도 감히 항거 할 수 없었다.

천자의 몰락 앞에서, 조정은 그저 숨죽인 시체들처럼 침묵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하나, 그 침묵을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적 동탁아! 감히 하늘을 속이고 황제를 폐하다니! 나는 이 목을 잘라네 얼굴에 피를 뿌릴 것이다!"

모든 시선이 계단 아래를 향해 돌아갔다.

그곳엔 한 늙은 신하가 붉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들고 있

던 상소용 죽간을 높이 들었다.

그는 그대로 전방을 향해 달려 나가며 손에 든 죽간을 동탁을 향

해 힘껏 내리쳤다.

"죽어라, 이 역적 놈아!"

찰나의 순간. 동탁의 호위무사들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를 막아섰

고, 죽간은 바닥에 부서지듯 튕겨나갔다.

동탁은 분노로 눈이 뒤집혀 포효했다.

"이놈을 당장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무사들이 늙은 신하를 포박하려 다가섰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입술은 독처럼 쏟아지는 욕설을 쉬지 않고 뱉었고, 그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이의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내 오늘 죽어도, 천하 사람들 모두가 안다!

너 같은 역적이 하늘을 거역했음을!

내 피로라도 역적의 발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그는 끌려가며도 외쳤고,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도 욕을 멈추지 않았다.

칼날이 떨어졌을 때에도, 그의 두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는 정의의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한 조정 유일한 진짜 사내였다.

그의 이름은 정식 상서, 정대부.

그리고 훗날, 수많은 문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를 남겼다.

"동탁 역적이 폐립을 꾀하여
한나라의 사직은 허물어졌고
조정의 신료들은 모두 침묵했으나
오직 정공만이 참된 사내로 남았도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동탁은 새로운 꼭두각시 황제를 옹립하기 위해 조정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가 선택한 인물은 진류왕 유협, 나이는 고작 아홉 살. 아직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동탁은 그의 조용한 눈빛 속에서, 말을 잘 듣고 저항하지 않을 완벽한 인형'을 본 것이다.

"황제를 모셔라."

동탁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새 황제는 진류왕복을 걸치고 전각 위로 오르자, 백관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만세를 외쳤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동탁의 시대였다.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무릎 꿇지도 않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예도 없었다.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점을 찬 채 당당히 입장했고, 신하들이 급히 걷는 자리에서도 그는 느긋하게 걸었다.

천자의 위엄조차 그의 발밑에 짓밟혔다.

그는 조정 한가운데에서 호령했다.

"폐위된 전 황제와 황태후, 그리고 후궁들은 모두 영안궁으로 옮겨 가둬라.
문을 봉하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라. 접근한 자는 죄 없이 베겠다."

그 순간, 조정 안의 모든 공기는 멎은 듯 얼어붙었다.

무력한 어린 황제는 울음을 삼켰고, 황태후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손을 내밀 수 없었고, 누구도 도울 수 없었다.

슬프게도, 앞서 황제로 즉위한 어린 유변은 겨우 넉 달 만에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궁 안 깊은 곳에 유폐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흘러갔다.

동탁은 스스로를 '상국이라 칭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신하가 아닌 '제왕'을 뜻했다.

한편, 책사 이유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올렸다.

"태위, 백성들의 민심이 아직 조정에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니다. 이름 높은 학자들과 명망 있는 인물들을 등용한다면, 그들 덕에 세상의 시선도 조금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채옹이라는 자가 탁월한 문장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조정에 부르심이 어울릴 것입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자, 곧장 불러오라."

곧 사자가 채옹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채옹은 단호하게 사절했다.

"나는 병이 깊어 조정에 나아갈 수 없소."

그 말이 동탁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그는 다시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협박했다.

"너 하나 불러오자고 군대를 움직이게 하지 마라.

만약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집안 모두- 뿌리까지 없애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채옹은 밤새 고민했다.

붓을 꺾고, 경서를 덮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운명을 저울질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

그를 본 동탁은 크게 기뻐했다.

"이제야 조정이 살 맛이 나는군!"

그는 채옹에게 한 달 안에 세 번이나 벼슬을 올려주었고, 마침내 시중(황제의 걸을 보좌하는 최고관직)에 봉하며 누구보다 깊은 총애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 모든 친애와 호의는 _ 언젠든 칼날로 변할 수 있는 것
임을... 채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렵, 폐위된 어린 황제는 황태후와 황비 당씨와 함께 영안궁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다.

화려했던 옥좌의 주인도, 존귀한 천자의 칭호도 이제는 모두 꿈처
럼 사라지고 말았다.

영안궁.

그곳은 이름만 그럴싸했을 뿐, 실상은 외진 궁궐 한켠의 잊힌 공간
이었다.

궁녀도 몇 없었고, 병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출입을 감시 할 뿐이
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정에서 보내는 의복과 음식도 점점 줄어들었다.

무명천으로 된 험 옷은 밤이면 찬바람을 막지 못했고, 밥상엔 말라
붙은 밥과 물김치 같은 국물이 전부였다.

밤이면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단절
되었다.

무엇보다 어린 황제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고요한 시간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매일 꿈을 꿔다. 황금빛 용좌에 앉아 있던 지
난 봄의 기억, 조복을 입고 백관들의 만세를 받던 그날의 눈부신
순간들.

그러나 아침이 오면 현실은 늘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눈물은 하루도 마르지 않았다.

아홉 살 소년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봄의 햇살이 정원 끝자락을 어루만지고 있을 무렵, 그 소년 황제
는 혼자 뜰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하늘 아래, 어디선가 제비 두 마리가 날아와 정원 한가운데를 빙빙 돌더니, 나뭇가지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깃을 고르며, 마치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세상의 대명사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황제는 문득 속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른들조차 흉내 내기 어려운 슬픔과 기쁨이 깃들여 있었다.

"연초록 풀잎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하늘하늘 날아드는 쌍제비는 서로를 따라 노니네.
푸르게 흐르는 낙수강은 변함없건만,
길 위의 사람들은 그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리라.

저 멀리 바라보이는 저 구름 속,
저곳이... 나의 궁궐이었지.

누가 과연 총의로 이 억울함을 알아주려나...
내 마음속 한을 세상에 전해줄 이는, 과연 누구인가...

그 시를 읊고 나서도, 소년 황제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쌍제비는 이미 날아가고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것처럼 손을 뻗어 허공을 매만졌다.

그날의 시는 궁녀 하나가 몰래 마음에 새겼고, 훗날 조정에 전해지며 **. 쌍제비의 시'**로 세상에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비록 폐위된 황제라 하나, 그 마음은 한 나라의 백성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웠음을.